

“화엄 장엄의 바다로 초대합니다”

통도사 12월 11일~1월 9일 화엄산림대법회

30여 스님 초대법문 예정
매주 토요일엔 ‘법성계’ 법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 화엄산림대법회가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30일 동안 대강백 스님들의 릴레이 초대 법석으로 이어지는 이번 법회는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2월 22일 임재식은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의 법어로 시작해 오후 2시에 전 통도사 강주였던 우진 스님의 ‘화엄경 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회는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 원로의원 율파 스님,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을 비롯해 30여 대강백 스님들의 초대법문이 이어지며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마무리된다.

법회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법성계’라고 불리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된다. 법성계 법석은 화엄산림에 동참한 대중들이 법성계를 독송하며 반야공손에 연결된 긴 끈을 잡고 법성도 모양으로 돌며 영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화엄산림 기간 동안 모신 영가 위패와 반야공손은 회향 법회 후 함께 태운다.

통도사는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 모아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선재동자의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자 한다”며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1971년 12월 경봉 스님(1892~1982)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매년 영남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055)382-7182 **하성미** 기자

불기2559(2015)년 화엄산림대법회

임재법문 화엄경 헌담	12/11(금)	원명지중스님(통도사 방장) 우진스님(통도사 강주)
세주요엄품	12(토)	해남스님(통도사 율주)
여래현상품/보현삼매품	13(일)	자광스님(전 직지사주지)
세계성취품	14(월)	성우스님(전계대화상, 불교BTN사장)
화장세계품	15(화)	보선스님(대흥사 회주)
비로자나품	16(수)	경성스님(해인사 율주)
여래영호품/사성제품	17(목)	덕민스님(불국사 학장)
광명각품/보살문명품	18(금)	수진스님(동명대석좌교수, 해인정사 주지)
정행품/현수품	19(토)	도업스님(동국대 명예 교수)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계찬품	20(일)	현해스님(일정사 회주)
십주품	21(월)	중선스님(수도암 감현)
범행품	22(화)	법산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초발심공덕품/명법품	23(수)	정인스님(승가대 교수)
불송아미천공품/아미천공계찬품	24(목)	심산스님(총방주지)
심행/심수문장품	25(금)	해인스님(은해사, 약천사 회주)
승도솔천공품/도솔천공계찬품	12/26(토)	도일스님(前승려사 율원장)
심화행품 1-5	27(일)	보광스님(해인사강주, 주지)
심화행품 6-10	28(월)	해거스님(금강선원 선원장)
십지품	29(화)	각성스님(前통도사 강주)
십정품	30(수)	정우스님(前통도사 주지, 군중교구장)
십정심통품/십인품	31(목)	현진스님(통도사 강주)
아미수량품/여래수량품	1/1(금)	시명스님(前해인사 통도사 교무, 교무교구장)
제보살주처품/보살부법품	2(토)	원학스님(前봉은사 주지)
여래십신상해품/여래수호공덕품	3(일)	율파스님(원로의원, 문수사주지)
보행현품	4(월)	법선스님(육련암감현)
여래출현품	5(화)	화랑스님(동명불원 주지)
이세간품	6(수)	신공스님(원형구생사 주지)
입법계품(휴시우버니까지)	7(목)	종광스님(前기림사 주지)
입법계품(비국구사~반산반연주아신)	8(금)	상우스님(원운암감현, 前부방장)
입법계품 회향법문	9(토)	영배스님(통도사 주지)

“울산지역 군포교 산실로 우뚝 서겠다”

울산 정토사, 11월 29일 ‘2015년 군인 및 경찰 위한 수계법회’

20년 넘게 군포교를 이어온 곳이 있다. 바로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다. 정토사는 매년 연말이면 군장병과 경찰들을 위한 수계식을 개최하고 있다.

11월 29일 정토사는 150여 군장병과 경찰들로 가득했다. 정토사가 ‘2015년 울산 지역 군인 경찰 수계법회 및 격려 위문공연’을 개최한 것이다. 참석한 이들은 울산 지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육군 7765부대, 공군 8146부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및 경관들이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은 계율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법회가 시작되자 대중들은 삼귀의와 함께 반야심경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삶을 발원한 그들의 눈빛은 엄숙했다. 연비를 받으며 어색함에 놀라는 것도 잠시 그들을 위해 함께 발원하는 포교사들의 도움 아래 수계 의식을 마쳤다.

정토사 불자들은 정성껏 뷔페를 마련해 이들의 수계를 축하했다. 떡, 과일, 떡볶이, 잡채, 채식 비빔밥 등 정성이 가득한 요리를 본 장병들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위문공연에서는 정토사불교대학 출신으로

20년 넘게 군장병 수계법회 진행

정토사 포교사 100여 명 군포교 활동

울산지역 군부대 법당 불사도 이어가

구성된 군포교 담당 문수·보현 팀의 연주를 감상했다. 정토사 난타팀, 장병 장기자랑 대회 등이 펼쳐졌다.

현재 정토사는 군포교를 위해 매년 수계식을 진행해 수계를 받은 장병이 총 26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1995년부터 7765부대 본부 53사단 1270연대를 시작으로 2011년 7765부대 3대대와 2대대에 법당



20년 넘게 울산 군포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토사(주지 덕진)가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을 불사했다. 아울러 4대대에서는 새 불상을 봉안하고 법회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어 울산에 있는 공군 부대를 비롯해 총 7개의 군부대에 정토사는 법당을 마련했다. 이번뿐만 아니라, 법당에서 매주 법회와 공연, 공양까지 군포교를 담당하는 문수·보현 포교사팀도 조직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참좋은세상(대표 덕진)이 봉사활동

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활동비 후원은 정토사가 맡는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정토사 외에 군포교 활동을 위해 힘을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타 종교의 적극적 포교 활동에 비하면 아직 미진한 면이 있다”며 “군포교를 위해 더욱 연합하고 노력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십시일반 불자 성원, 7년 불사를 완성하다

연양 양덕사, 11월 29일 ‘관음전 낙성법요식’

천태종 연양 양덕사(주지 세운)가 관음기도도량으로 거듭났다. 양덕사는 11월 29일 관음전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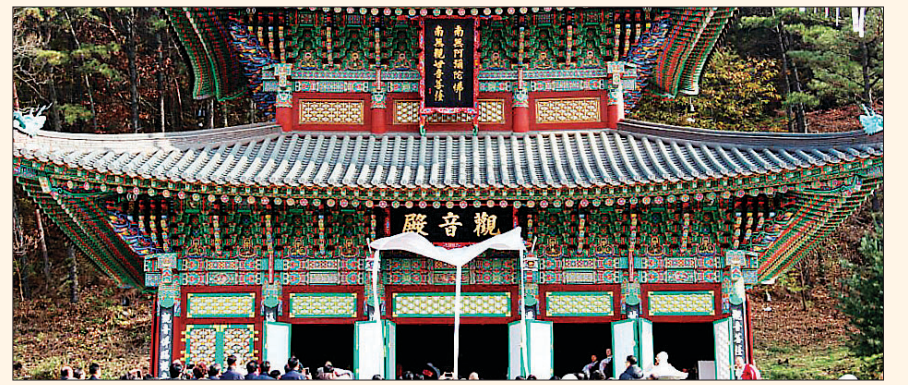
양덕사는 2009년 12월 10일 관음전 불사를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5월 25일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낙성법회를 거행한 관음전의 불사 기간은 총 7년이다. 전통 목조양식의 중층 건물인 관음전은 50여 평이며 기존 관음전은 지판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낙성식은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원로위원장 언덕 스님, 총무원장 준광 스님 및

전국 천태불자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덕사는 관음전 낙성에 도움을 준 김청일 양덕사 신도회장, 이경숙 부회장과 11명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 등을 전달했다.

낙성법요식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일심 정진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니 인연 맺은 모든 이들 불보살님 가피가 득하여라. 오직 하나 불심으로 정각도량 빛내어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양덕사 대중들은 불사에 동참한 그 마음 그대로 기



천태종 양덕사는 관음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했다.

도하고 정진해 장엄한 도량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양덕사 주지 세운 스님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도량을 건립하고 불보살님과 조사님들의 존상을 봉안하는 것은 부처님

의 바른 법을 잘 보호하고 실천해 영원한 안락을 누리기 위함이다”며 “여러 불자들은 양덕사가 이러한 도량이 되도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성주 길조암 ‘정’ 나누기 김장 나눔 행사

성주 길조암(주지 보현)은 11월 28일 성주 용암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정을 나누는 사랑, 공경, 효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길조암 신도회(회장 류태호) 신도들이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담았다. 길조암은 2008년부터 용암면 다문화 가족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및 김장 봉사를 하고 있다.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고귀한 삶에 조그마한 위안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주사암연합회장 지혜 스님도 “우리 시대 화두인 부처님의 자비행을 불자들이 몸소 실천해 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한유치 오광현 약단의 공연도 함께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용호종합복지관, 어울림孝한마당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11월 27일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부산지회 가수분과위원회(위원장 노명호)와 함께 복지관에서 ‘어울림 효 한마당’을 개최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부산지회 가수분과위원회의 후원 및 재능기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저소득 결식어르신을 위한 생선잔치와 지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어울림 효 한마당’ 공연으로 진행됐다.

‘어울림 효 한마당’은 식사후원, 생선상차림, 선물제공 등 풍성한 선물 및 공연



으로 준비됐으며 지역 내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가요, 민요, 각설이 타령, 국악,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저소득층 연탄 나눔

부산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는 11월 26일 부산의 대표적인 저소득계층지역인 매죽지 마을에서 ‘저소득층 이웃돕기 연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탄 전달식은 부산불교승가연합회 측이 부산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탄구입비 및 후원금 1200만원을 전달하고 모금회가 부산연탄은행에서 2만 장의 연탄을 구입해 다시 스님과 불자들이 연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승가



연합회 측에서는 경담 스님을 비롯해 도문 스님, 성문 스님 등 회원 스님들이 참가해 매죽지마을 20가구에 각 100장씩 2000장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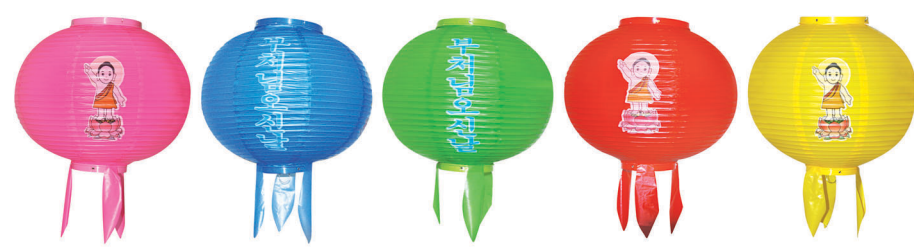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 만월등 |



| 공단등 |

| 정품LED전구 |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2016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x308mm) 29호 12절 13매 (257x263mm)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